

- 통권 100호를 맞이한 『방재와 보험』 보다 새롭게 거듭 나겠습니다 -



『방재와 보험』 애독자 여러분!

2004년 새해를 맞이하여 그 동안 우리 협회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기쁨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지난 한해를 돌아해보면 국민의 정부 5년을 마감하고 참여 정부가 새롭게 출범하는 등 국가적으로 큰 변화가 있었던 한 해였습니다. 특히 연초에 발생한 대구 지하철 화재참사는 안전 분야에 종사하는 우리에게는 물론 국민 모두에게도 크나큰 충격을 안겨준 사건이었습니다. 1973년 민간방재전문기관으로 출범하여 30년간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업무를 수행하여 온 우리 협회에게 많은 자성과 함께 방재전문기관으로서의 깊은 사명감을 다시 한번 다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최근 정부는 되풀이되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범정부적 재난관리대책과 관련 법률의 보완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협회는 30년간 축적된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각종 재난사고를 예방하고 적정한 사후보상을 위하여 방재전문기관으로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할 것입니다.

화재안전 분야에 대한 정보 취득이 쉽지 않았던 시절에 관련분야 정보를 제공하고 참여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1976년 우리 협회 기관지로 출발한 『방재와 보험』이 어느덧 지령 100호를

맞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30년 가까이 발간을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협회의 노력이기 보다는 그동안 꾸준한 관심과 충고를 아끼지 않으신 독자 여러분의 덕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지면을 빌어 독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우리 협회는 『방재와 보험』을 통해서 독자 여러분께 보다 유익한 자료를 제공하고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였으나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 지령 100호를 맞이하여 『방재와 보험』을 계간지에서 격월간지로 개편하여 발간 횟수를 늘림은 물론, 보다 필요한 정보와 충실한 자료를 제공하여 독자 여러분이 항상 곁에 두고 싶은 참신한 전문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방재와 보험』 독자 여러분 !

희망찬 새해 아침, 보다 안정된 생활 속에서 뜻하시는 모든 일을 이루시는 한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 元트
한국화재보험협회 이사장
박 정 훈